

본문 : 야고보서 1 장 5-8 절

제목 : 안심하세요, 이곳은 주님의 세계입니다.

1. 지식의 바다

여러분, 요즘 힘든 일이 있으면 누구에게 먼저 말을 하시나요? 이제는 사람대신 휴대폰을 열고 AI에게 대화를 건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사람에게서보다 더 따뜻한 위로를 받는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앞으로 AI의 활용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 사회와 우리 삶이 많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AI에 대해 너무 지나친 신뢰와 의존이 부정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Open AI의 CEO인 Sam Altman,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의 CEO인 피터 틸,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AI시대의 미래를 밝게만 전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Physical AI가 우리를 육체 노동뿐만 아니라 정신 노동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거라 얘기합니다.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에서 해방된 인간은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과연 그럴까 의문이 듭니다. 과연 인간이 노동에서 해방되면 행복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AI가 만들어갈 미래를 낙관하기엔 이르다 생각합니다. 게다가 AI가 다 해결하지 못할 만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 그리고 그런 인간들로 구성된 이 사회는 훨씬 복잡합니다. 일부 기업가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AI의 사용 범위나 활용에 윤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인류 전체의 공익을 위한 개발과 사용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 앞으로 AI 또는 AGI가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AI가 범람하는 이 때, 오히려 더 큰 분별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넘쳐나는 지식의 바다에서 인류의 공동발전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인생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참 지혜가 요구 되는 것 같습니다.

2. 포로들

야고보는 흩어져 지내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시험과 시련에 관한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시험과 시련을 인내하며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말한 후,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지혜를 구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야고보는 왜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지내는 성도들을 향해 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지혜란 말을 이해해야 하는데, 그러기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와 바벨론 포로들의 이야기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주전 586 년 남유다가 바빌로니아에게 망하면서 많은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때까지 많은 구약의 이야기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때까지 성경을 책으로 정리할 필요를 많이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그들의 종교의 중심에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바벨론에 의해 성전은 무너지고 없어졌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와 있었죠. 그때부터 회당 중심의 삶이 시작됐습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려면 성경이 있어야 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입으로 전해 내려오던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창세기도 이 때 완성되었습니다. 창세기의 이야기는 고대 근동의 여러 신화들의 이야기들과 비슷한 부분들이 있으면서도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이 잡혀간 바벨론에도 창조 신화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마르둑이란 신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바벨론의 창조신화였던 "에누마 엘리쉬(Enūma Eliš)"는 마르둑 신의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신화였죠. 이 신화는 혼돈에서 시작합니다. 세상이 무질서하고 물과 바다 속에 있는 혼돈 상태였다는 것이 신화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이집트나 고대 근동의 다른 민족들의 창조 신화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이야기는 바로 혼돈입니다. 창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혼돈과 어둠 그리고 무질서의 세계에 질서를 부여한 사건이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3. 혼돈의 세계에 질서를 가져온 창조

창세기 1 장 2 절 말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단 말은 무질서하다는 말입니다. 혼돈의 사전적 의미는 '마구 뒤섞여 있어 갈피를 잡을 수 없음'입니다. 무질서하여 뭐가 뭔지 구분이 안 되는 상태인 거죠. 어둠이 깊음 위에 있다는 것은 혼돈의 상태와 같은 말입니다. 카오스(Chaos) 상태를 말합니다. 혼돈과 어둠의 공통점은 뭐가 뭔지 구분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질서도 없고 생명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는 상태이죠. 어두운 동굴에서 목이 말라 바가지에 담긴 물을 달게 먹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해골에 담긴 물이었다는 원효 대사의 일화를 들어보신 적 있죠? 어두우면 분별이 되지 않아 올바른 판단을 하기 힘듭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닭이 알을 품듯 하나님의 영은 혼돈과 무질서의 세계를 품고 계신 것이죠. 창조 이전의 상태에 있었던 혼돈과 어둠의 세계는 물에 잠긴 세계로 묘사되고 있는 것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깊은 물 속을 들여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던가요? 심연이라 부르는 깊은 물을 볼 때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왜냐면

그 깊은 속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뭐가 있는 지 알 수 없고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 물이나 바다는 혼돈의 세계를 상징합니다. 혼돈이라는 한자는 섞을 혼(混)자와 어두울 돈(沌)자가 합쳐진 말인데, 흥미로운 건 둘 다 물 수(水)자가 있다는 겁니다. 혼돈과 물, 혼돈과 바다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혼돈의 세계에 질서를 부여하고, 어둠의 세계에 빛을 통해 분별이 가능하게 하신 사건이 창조입니다. 이런 질서 위에 생명들이 살아 숨쉬게 하여 그 생명들이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신 것이 창조입니다.

4. 지혜서들

구약성경에서는 지혜가 이 세상의 창조전부터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지혜는 창조주 하나님 곁에 있었고 하나님은 지혜로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믿었습니다. 지혜는 창조전부터 있었던 창조의 동역자로 그려집니다. 바벨론 포로들은 욱기, 잠언, 전도서 같은 지혜서들을 정리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어떤 삶이 지혜로운 삶일까 깊이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모든 지혜서들의 바탕에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였다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지혜의 근본인 것이죠. 잠언 8 장과 9 장을 보면 지혜가 사람들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잠언 8 장 1 절입니다. "지혜가 부르고 있지 않느냐?" 4 절입니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른다. 내가 모두에게 소리를 높인다." 9 장에서는 지혜가 일곱 기둥을 깎아 세워서 집을 짓고 사람들을 그 집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그들을 불러 놓고 말합니다. 잠언 8 장 24 절입니다. "아직 깊은 바다가 생기기도 전에, 물이 가득한 샘이 생기기도 전에, 나는(지혜) 이미 태어났다." 창조 전에 지혜가 이미 있었다고 잠언은 말합니다. 잠언 8 장 27 절입니다. "주님께서 하늘을 제자리에 두시며, 깊은 바다 둘레에 경계선을 그으실 때에도, 내가(지혜가) 거기에 있었다." 창조의 사건을 경계선을 긋는 것, 선을 긋는 것으로 이해하는 부분이 눈에 띕니다.

바운더리와 선을 만드는 일은 창조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면 선을 그어 구분하는 일은 질서를 부여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실 때 중앙에 선이 그어진 길의 오른쪽을 달려서 오셨습니다. 반대편에서 아무리 차가 싸게 달려오더라도 선을 지키고 가면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선이 없어진다면 어떻겠습니까? 모두가 자유롭게 달린다면 그게 자유일까요 공포일까요? 선과 바운더리는 질서입니다. 그러기에 창조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는 우리를 안심시킵니다. '아~ 이 세상이 아무리 혼돈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경계를 지으신 분이시기에 안심할 수 있는

거구나! 생각하게 되죠.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구나. 주님이 만드셨고 운행하시니 안전하겠구나.' 주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신뢰하는 사람은 안심이 됩니다. 창조의 이야기, 창조의 신앙을 따르는 삶은 우리 삶에 진정한 안정을 줄 수 있습니다.

욥기도 지혜서입니다. 욥기는 혼돈 그 자체입니다.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바벨론 포로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 시험과 환난 앞에서 창조 신앙은 위협을 받게 된거죠. 하지만 욥기는 말합니다.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 있어. 모든 일은 인과응보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맞지 않은 것 때문에 혼란스러워 하면 안 돼. 살다 보면 설명되지 않는 순간이 있거든..." 이런 혼돈의 세계 한 가운데 빠진 욥에게 하나님은 창조주로 나타나십니다. "네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욥 38:2)" 창조주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 지혜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거기에 있더라도 하였느냐? 네가 것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신앙은 지식이나 이해함이 아니라 신뢰함과 믿음이고, 설명보다 경외함이 지혜라는 것을 지혜서인 욥기는 말해줍니다.

5. 신약의 지혜서 야고보

신약성경에 와서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창조 이전부터 계셨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로 말미암아 창조된 지혜로 묘사합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지혜라 말합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고전 1:24)." 야고보서는 지혜서의 전통을 따르고 있기에 신약의 지혜서라 불립니다. 지혜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놓여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1 장 2-3 절에 나오는 시험과 시련은 혼돈의 세계를 말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이 혼돈으로 가득한 세상 한 가운데서 흩어져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지혜입니다. 질서 잡히지 않고 분별하기 힘든 혼란함 가운데 놓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야고보는 지혜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포커스를 잘 맞추라고 요구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지혜를 믿고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다고 합니다. 바다는 혼돈을 상징한다 말씀드렸죠. 의심하는 사람,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무질서의 세계로 빠질 수 밖에 없다는 경고입니다.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두 마음을 품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double-minded 라 표현합니다.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진 것입니다. 지난 번에 디아스포라들의 삶에 놓여 있는 두 개의 커다란 이야기가 있다 했죠. 주류 사회의 이야기인 로마인들의 이야기를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따라 살 것인가의 갈림길에서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야고보는 경고합니다. 아니 오히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지혜의 이야기를 따라가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창조의 질서에 순응하고 그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기술을 지혜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맞게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얻으라 간절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의 유대 포로들도 이 두 이야기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제국의 이야기를 따를 것인가 창조주 하나님의 이야기를 따를 것인가?

6. 안심하세요 이곳은 주님의 세계입니다.

모든 고대 근동과 지중해의 창조 신화에 혼돈의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있듯이 성경에도 카오스에 맞서 질서를 잡아가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등장한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다른 민족들의 창조 신화와 다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바빌론 창조 신화인 에누마 엘리쉬에서 마루дук이란 신은 전쟁을 통해 혼돈을 잠재웁니다. 그리고 신들의 허드렛일을 거두는 존재로 인간을 만듭니다. 통치의 도구로 폭력과 지배를 정당화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인간들은 신들을 위해 신전을 만들고 신들이 먹는 음식인 제물을 마련해 신에게 받쳐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야웨 하나님은 혼돈을 질서로 잠재웁니다. 선을 긋고 경계를 세워 질서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질서 안에 생명체들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체들의 창조의 마지막에 인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창조의 파트너로 부르셨죠. 나와 함께 창조의 이 위대한 과업을 완성하자고 인간을 부르신 것이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파트너로 부르셨다는 것이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인간들을 위해 에덴 동산을 만들고 인간의 먹거리를 준비하십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신전으로 이해되었죠. 인간이 신을 위해 신전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에덴을 만드신 것이죠. 전쟁과 폭력을 통해 혼돈을 잠재운다는 제국의 이야기와 반대로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통해 혼돈은 물러가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이야기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여전히 이 두 이야기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주류 사회의 강력한 이야기를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순응하여 지혜를 따라가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이죠. 고대부터 창조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심하세요.

이 세상은 여전히 혼돈스러워 보이지만,

여기는 주님의 세계입니다.

선을 긋고 경계를 만드신 분이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아낌 없이 주시는 분이요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시죠. 좋으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잠시 어둠이 우리를 찾아 온다해도 다시 햇살은 비추기 시작할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아낌 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참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게 할 삶의 참 기술인 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